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박복순
출장기간	6/2 - 6/8		출장지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법 정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외국의 선진사례 조사 - 한부모가족 정책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면담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 4,286 천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 면담자				논의사항		
<p>◆ Family & Parenting Institute 방문 면담자: - Dr Martina Klett-Davies (Research Fellow) - Sally Gimson (Campaigns Manager)</p> <p>◆ Bundes Forum Familie 방문 면담자: - Dr. Katherine Bird (the head of Bundes Forum Familie) - Peggi Liebisch (the head of VAMV)</p> <p>◆ Abgeordnetenhaus von Berlin 방문 면담자: - Anja Kofbinger (Die Grünen, Frauenpolitische Sprecher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과 독일의 한부모가족 정책 현황조사 - Family & Parenting Institute와 Bundes Forum Familie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흐름과 시민단체의 입법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 - 관련연구자 면담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8. 6. 11.

출 장 복 명 자 : 박복순 연구위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영국과 독일의 한부모가족 법과 정책
(Lone Parent Law and Policy in
England, Germany)

2008. 6. 11.

보고자 : 박 복 순
(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본문 >

1. 회의명 : 영국과 독일의 한부모가족 법과 정책

(Lone Parent Law and Policy in England, Germany)

2. 회의배경 및 목적

가. 영국과 독일의 한부모 가족 법과 정책의 현황 및 배경
나. 한부모 가족 법과 정책의 장애 요인과 성공 요인 파악
다. EU의 한부모 가족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수집

3. 참가자 규모 : 총 1명

- 본원의 박복순 연구위원

4. 회의일정

일 시	내 용
6/2(월)	인천 출발(13:05), 영국 런던 도착(16:55)
6/3(월)	Dr Martina Klett-Davies (Research Fellow, Family & Parenting Institute) 면담 Sally Gimson (Campaigns Manager, Family & Parenting Institute) 면담
6/4(화)	영국 런던 출발(10:55) 독일 베를린 도착(13:45)
6/5(수)	Katherine Bird(BUNDES FORUM FAMILIE) 면담 Peggi Liebisch(Verband alleinerziehender Mütter and Väter Bundesverband e.V.) 면담
6/6(목)	Anja Kofbinger(Abgeordnetenhaus von Berlin) 면담
6/7-6/8(토-일)	베를린 출발(13:25) 프랑크푸르트 도착(14:25) 프랑크푸르트 출발(19:45) 인천 도착(13:10)

5. 주요내용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터뷰 내용 1.

인터뷰 대상 :

Dr. Martina Klett-Davies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 Research Fellow), Sally Gimson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 Campaigns Manager)

인터뷰 날짜 :

2008년 6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12시 25분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의 한부모 가족에 대해 관심을 보여, 한국은 전체 가구의 8% 정도가 한부모 가족이고, 이 중 70% 정도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임을 설명해 주었다. 영국에는 24% 정도의 한부모 가족이 있다고 한다.

Dr. Martina는 베를린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일하는 부모, 즉 직장 내에서의 한부모 지원으로 방향 선회가 있는데, 이는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영국하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크리스찬이라는 종교적 이유가 반영되어 독일은 3년 동안 무조건 엄마가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3년 동안 돌볼 수 있도록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과거의 동독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아기 돌보는 비용이 낮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도 비용 걱정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각 나라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책보다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참고자료로 자신의 저서 *Going It Alone?: Lone Motherhood in Late Modernity*(Ashgate, 2007. 5. 7) 을 소개받았으며, 그 밖에,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Parent Households*(European Commission, 2007. 2.), *In work, better off : next steps to full employment, A response from the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2007. 10. 30), <http://www.dwp.gov.uk/welfarereform/parents.asp>, *The Diversity of State Benefit Dependent Lone Mothers : the Use of Type Categories As an Alalytical Tool*, Martina Klett-Davies(2005. 3. 31.) 등을 받아 왔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터뷰 내용 2.

인터뷰 대상 : Dr. Katherine Bird (Bundesforumfamilie, 프로젝트 총지휘자),
Mrs. Peggi Liebisch (VAMV)

인터뷰 날짜 : 2008년 6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11시 15분

Dr. Bird 는 현재 'Kinderwochenwerte(?)'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어떻게 자녀들을 더 잘 교육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이다. 현재 자녀 교육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적인면을 주제로 대두 시키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관대함, 자신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실과 절제를 지켜 나갈 수 있는지를 교육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과거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돌이켜 볼 때 사회적 구조나 교육 시스템등이 자녀교육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점을 고려해 더 나은 자녀 교육 방법을 추구해보자는 것이 취지이다. 현재 Dr. Bird 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대략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소그룹들을 형성하여 각 그룹의 자체내에서 위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며 대외적으로는 연구한 내용을 정기적인 행사나 workshop의 형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프로젝트의 종료 후 그에 대한 취지, 실행 및 결과내용을 서술한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Mrs. Liebisch가 근무하고 있는 VAMV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1967년에 Luise Schoeffel여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처음에는 아이를 가진 독신모들의 사회적 여권 신장이 목적이었으나 현재에는 동거 후 이별, 이혼 그리고 사별이 원인이 된 한부모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재혼을 통해 두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VAMV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도움(자립)을 주기 위한 도움이라는 근본적 이념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활동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상황을 향상 시키고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독일의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250만 가구이며 이들의 더 나은 조건의 자녀수당과 자녀 부양비 그리고 자녀 부양권 문제를 위해 VAMV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의 법적 조치의 향상과 한부모 가족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인 빈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독일에는 25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OECD의 빈곤 정의에 따르면) 또한 VAMV는 자녀수당 매달 450 유로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에 이에 따른 법 개정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로 올해까지 매달 150 유로씩 지급되었던 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200유로로 50유로를 인상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의 빈곤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그들의 가진 능력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만 3세부터 6세까지 독일에 있는 모든 유아들은 법적으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현재 유치원의 자리 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베를린의 경우 만 3세에서 6세의 유아들 중 95% 정도는 유치원에 갈 수 있으나 남독일의 경우는 불과 그 지역 전체 유아들 중35%에 밖에 유치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통독 전 동베를린에서는 직업여성들을 위해 그들이 일하는 회사나 공장안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자녀들을 맡아주는 100%의 유치원 자리가 확보되었었고 통독 이후에도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 동독 도시에는 더 나은 직업조건을 따라 서독 대도시로 이동한 젊은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률이 낮아지면서 유치원에 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많은 유치원들이 오후 1시까지 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어 만 6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한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시간 또한 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 한부모 가정들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아동 빈곤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VAMV가 독신모들을 대상으로 행한 앙케이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업여성의 10% (대부분이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가 출산후 법에 의해 노동이 금지된 기간(6-8주)이 지난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직장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직업여성들은 모자보호법에 의해 출산 후 1년동안 매달 마지막 월급의 65% 받으며 1년동안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돌보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더 많은 수의 유치원 설립과 출산 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독신모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유치원 입학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VAMV 의 생각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VAMV는 유럽 공동체 8개의 소속 국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유럽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향상 시키고 아동복, 기저귀 그리고 장난감등 영유아 아동제품에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적인 면이 한부모 문제에서 자녀문제로 중점을 돌린 이유는 독일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여권신장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지극히 외형적이 면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한부모 중에서도 특히 독신모에 대한 정책적 도움의 손길을 아동에게로 옮긴 것이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정책적 도움을 피력하고 아동 빈곤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의 상황을 가능하게 역사적으로 뒷바침 해주었던 사건이 바로 68학생운동 1968년에 베를린, 파리, 워싱턴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대적인 대학생운동으로 독일같은 경우에는 전쟁세대를 향해 나치정신을 타파할 것을 강요하는 탈 권위주의를 부르짖었던 후에 사회전반적 개혁에 밑받침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70년대 중반에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여성운동이 일어났고 이 시기에 VAMV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제한시키는 남편의 여성 직장활동 동의법을 철폐 시키고 이혼 후 여성이 자녀 부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 섰고, 독신모의 생존의 자립을 위해 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데 힘썼다. 그후 10년 후인 80년대 중반에 이 여성들이 학보모가 되면서 그들 자녀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VAMV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VAMV는 한부모 가족들의 법적 보호법 통과와 아동빈곤 타파를 위한 아동 특별 보호법 제정을 위해 현 정부를 상대로 타 기관들과 연합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터뷰 내용 3.

인터뷰 대상 : Anja Kofbinger

(녹색당 연맹 90 소속 여당 국회의원, 여성정치, 동성애자정치, 민원청구소 소속)

인터뷰 날짜 : 2008년 6월 6일 (금요일) 오후 13시 - 14시 45분

국회의원 Kofbinger 씨에 의견에 따르면 현 독일에도 한국처럼 한부모 가족을 위한 특별 보호법의 부재로 한부모 가족에게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유치원 자리 미달 문제와 유치원 개원 시간에 제약으로 한부모들이 하루에 만나절박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에서 오는 한부모 가족 및 아동 빈곤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전 한부모 가족의 60-70 % 가 저임금 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독일 연방제국은 2013년까지 유치원 신설을 통해 95%까지 유치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의 사회지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녹색당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녹색당 전체 국회의원 수의 50%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의 규칙을 세웠다고 한다. 2005년도 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전체 인구의 40-50% 로 그 중에 독신모는 약 65 %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프랑스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을 약 80%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전체 여성의 약9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독일의 여성이 이웃 나라들에 비해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독일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비현대적인 어머니상에서 사회적 성공을 꿈꾸며 직업 생활을 활동적으로 하는 직장 여성인으로 현대 어머니상이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현대적인 어머니상을 의식적으로 개혁시키고 올바른 현대적 여인과 어머니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하나로 (여)성학을 수강하게 하고 있으며 성에 따른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 전반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의 초석이 되는 유치원에서도 여아와 남아를 대상으로 성 평등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80년대 중반에 여성 차별 주의 교육 내용을 개혁하게 된 초석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68 대학생 운동이었고 연이어 70년도 중반에 일어난 여권 신장 운동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의 결과로 200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 입학 시험과 같은 고등 학교 졸업시험인 Abitur 합격자 중 여고생수가 남고생수의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한다. 그로 인하여1919년 법적으로 여성의 대학교육이 허락된 이후 약90년만에 여대생 수가 남대생 수를 능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06 년 교육부 통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고위 관리자급 자리의 40%를 여성을 채용해야 하는 법이 통과 된 노르웨이를 모델로 받아들여 연방 정부는 2007년 말부터 독일 기업에 이와 같은 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실용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녹색당은 한부모 가족의 특별 보호법의 하나인 한부모들이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 개원시간을 법적으로 오후 16시로 연장시켜 한부모들에게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경제활동과 더 나아가 사회적 진출을 권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혼을 통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수가 높아져 이들을 위한 특별 보호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처럼 독일 역시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사회의 강제적 동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도와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결혼 전에 독일어 시험을 보는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독일 국적의 결혼 적령기 터어키 남성들은 대부분 문화적 사회적 발전이 현저히 뒤떨어진 터키의 소도시의 여성들과 맞선을 보고 바로 결혼식을 올린후 독일에서 가정을 꾸려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터키에서 온 소위 "수입신부들"은 독일어 수업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터키 가구들이 몰려 사는 빈민지역에서 문화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고 있다. 이러한 "예비 수입 신부들"에게 여권 신장 및 남녀 동등권 실현, 문화적 사회적 계몽을 주된 내용으로 한 독일어 수업을 받게 하자 2007년 4분기 부터 2008년 1분기까지 독일 국적을 가진 터키 남성의 터키 현지의 여성과의 결혼률이 50%가 낮아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터키 현지 예비신부들이 혼인 전에 터키의 각 도시마다 설립 된 독일 정부가 인정하는 독일어 학원, Goethe Institut에서 받게 되는 독일어 교육을 통해 여권 신장, 남녀 평등권 문제와 사회적 문화적 계몽에 대해 점차 눈뜨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끝으로 국회의원 Kofbinger 씨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법을 제정하고 통과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이제는 아동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빈곤과 무관하게 아동의 경제적 기본 여건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아동 특별 보호법을 추진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을 포함한 동양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문제, 정치적 참여 그리고 문화적 적응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6. 참가자 리스트, 관련기관 및 인사 리스트(이름, 기관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성명	소속	직위	Tel	E-mail	Fax
Martina Klett-Davies	Family & Parenting Institute	Research Fellow	(20)7428-7738	klett-davies@familyandparenting.org	(20)7485-3590
Sally Gimson	Family & Parenting Institute	Campaigns Manager	(20)7424-3466	gimson@familyandparenting.org	(20)7485-3590
Katherine Bird	BUNDES FORUM FAMILIE	Geschäftsführerin(사무국장)	(30)275 871-490	info@bundesforum-familie.de	(30)275 817-499
Peggi Liebisch	Verband alleinerziehender Mütter and Väter Bundesverband e.V.	Bundesgeschäftsführerin(연방사무국장)	(30)6959-7870	liebisch@vamv.de	(30)6959-7877
Anja Kofbinger	Abgeordnetenhaus von Berlin	Frauenpolitische Sprecherin(여성 정치대변인)	(30)2325-2437	anja.kofbinger@gruene-fraktion-berlin.de	(30)2325-2409